

“화두 참구가 결제요 타파되면 해제라”



범어사 선덕 대정 스님

전국의 출가 및 재가 선원에서 일제히 겨울 집중 수행에 들어간 11월 20일(음 10월 15일) 동안거 결제일. 불심수도 부산에서는 시내 곳곳에서 회색빛 법복을 입은 재가불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금정구 장전1동에 소재한 재가 수행도량 금정선원(원장 대명화)에서도 구순에 가까운 어르신에서부터 20대 젊은이까지 결제법회에 동참한 수행자들이 활기가 넘쳐났다.

이윽고 오전 11시 3층 법당. 금정선원의 스승이자 범어사 원로인 대정(大定) 스님이 결제법문을 하기 위해 법단에 오른다.

“광! 광! 광!”
주장자로 세 번 범상을 내리친 대정 스님이 사자후를 도하한다.

“법(法)에 따르면 부처요, 법에 어긋나면 범부입니다. 가고 오고 앉고 눕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배설하는 움직임을 떠나 법이 따로 없습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생명체와 돌이 아니듯, 사람이 법을 몰라도 법은 사람과 친밀하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에 생활과 소원 성취도 가능하고 이런 범문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법(眞法)은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올리자 가섭이 미소 지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마 대사는 ‘모르겠다(不識)’고 했고, 육조 스님은 ‘이렇고?’라 했으며, 임제 스님은 ‘할’을 했고, 덕산 스님은 방망이로 때렸으며, 조주 스님은 ‘무(無)’라 한 그것이 바로 진법입니다. 이러한 화두를 통해 무수한 도인이 출현하고, 영가들이 약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며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것도 법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는 참회, 지혜를 키우는 독경, 지극한 정성을 발하는 기도, 생각을 깨끗이 해서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염불, 우리 본래면목을 깨닫게 하는 참선, 이 모든 것이 법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법은 절대 평등하고 공정해서 일체 사(私)가 없습니다. 법은 하나여서 한마음, 한생각, 한뜻으로만 통할 수 있습니다. 염불, 참선, 주력, 독경, 기도 그 무엇을 하든 일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원에서 지금 결제법회를 열지만,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이 365일 오직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

이 참 결제입니다. 선원에서 입선과 방선이 따로 있는 것도 근기가 하열(下劣)해서 그러한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화두를 챙기며 참구하는 동안에 결제라 한다면, 화두가 타파되면 해제인 것입니다.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정진하기 위해 토굴수행도 필요한 것입니다. 화두가 일념으로 들리게 되면 힘을 쓰지 않아도 화두가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화두란 불·조사께서 중생이 몰록 깨치고 증득하도록 내어놓은 최고의 진리이자 정법안장(正法眼藏)입니다. 현재 조계종에서 일본학계의 명칭을 받아들여 ‘간화선(看話禪)’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조사선(祖師禪)’이라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화두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이 목적입니다. 견성성불 이외는 모두 허깨비입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고 밥 먹는 게 모두 성품인데, 이 성품을 모르니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생의 근본 무명업식으로 인해 반야지(般若智) 즉, 마음을 갖고도 마음을 모르고, 성품을 움직이면서도 볼 줄 모르니 다. 이와 같이 영원불멸한 참모습을 알기 위해 의심해 나가는 탐구심이 곧 화두입니다. 화두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신통일의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과 철학, 문화·예술의 발전이 탐구심 없이는 불가능 하듯이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있어야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화두는 불·조사가 내린 최고 진리 ‘간화선’ 일본 명칭, ‘조사선’ 옳아

(報身)에 해당합니다. 전지전능하며 신통 불가사의한 삼명육통(三明六通: 세 가지 지혜와 여섯 가지 신통력)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법(法)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근은 한계가 있지만, 참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다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본래 목적은 신통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마음을 깨달아 견성성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자리아타의 보살도를 행하는 자비심이 불교의 근본정신입니다. 자비심을 갖고 양심을 어기지 않고 본심을 잘 지키면 진심은 저절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계행을 지켜야 선정이 이뤄지고,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나오는 이치인 것입니다. 화두는 계정해 자체여서, 화두가 살아있으면 탐진퇴 삼독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삼독에 몰들지 않으면 부처요, 삼독에 몰들면 중생입니다. 화두의심이 살아있으면 부처요, 화두가 사라지면 중생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은 손바닥 앞뒤와 같습니다. 그래서 깨침은 손바닥 뒤집기 처럼 쉽다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불·조사이자 삼신불이건만, 그것을 몰라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지만, 스스로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은 마음 안에서 구해야 하고, 밖에서 구하면 병폐가 생깁니다. 알기 힘든 법을 어렵게 만났고, 범종의 법인 화두를 만났으니 최선을 다해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진실된 법의 세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실을 담은 소식을 접했으니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면 허깨비 같은 이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억(喝!)”

팔순의 고령이 만기지 않을 정도로 우렁차게 활을 하며 법문을 마친 대정 큰스님을, 법회가 끝난 후 6층 전경실에서 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달마 대사는 깨달은 분인데, 소리꾼에서 9년 면벽을 하신 것은 보임(보任: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悟後 공부)수행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조 혜가 대사를 만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마치 강태공(姜太公)이 80년 동안 위수(渭水)에서 낚시를 드리운 채 성군(聖君)인 주나라 문왕(文王)을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화두를 타파하여 견성해도 오랜 습기는 단박에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정정여래선인 조사선에서 화두를 타파하는 것은 돈오돈수(頓悟頓修: 단박 깨달아 단박 닦음)에 해당하지만, 습기는 단박에 소멸되지 않고 시간이

대정(大定) 스님은 ...
1931년 대구에서 태어나, 46년 경북중 재학시절 대구 폭동사건을 피해 지리산 쌍계사로 입산했다. 49년 전북 봉서사에서 보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스님은 50~59년 모악산 토굴에서 장좌불와(長坐不臥) 했으며, 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

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60~67년 지리산 토굴에서 생식과 벽곡을 하며 용맹정진 했으며, 67~70년 범어사, 해인사, 마곡사, 선암사 등 지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70~79년 지리산에서 일종식으로 토굴 수행을 했으며, 79년부터는 범어사 휴휴사에서 주석하며,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타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해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풀뿔이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중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慈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 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다락처를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뽀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면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역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풀어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